

함세덕 희곡에 나타난 국민국가 담론

-<거리는 쾌청한 가을 날씨>와 <고목>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승숙*

<차례>

- I. 문제의 제기
- II. 국민국가 담론의 양상
 1. 국민화의 기제들
 2. 저항과 계몽의 논리
 3. 균열과 통합
- III. 국민국가 담론의 거울이미지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함세덕의 희곡 <거리는 쾌청한 가을 날씨(町は秋晴れ)>와 <고목>의 비교를 통해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을 구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두 작품에는 동일하게 자유의지/강제 사이의 균열이 드러나 있다. <거리는 쾌청한 가을 날씨>에서 이 균열은 개인주의의 청산과 가부장적 국가주의의 확립을 통해 봉합되어 있다면 <고목>에서 그것은 '좌파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진리성'이라는 틀로 이면적으로 봉합되어 있다. 식민기의 친일극 <거리는 쾌청한 가을 날씨>와 해방기의 좌파극 <고목>은 얼핏 보기에 이질적인 작품처럼 보이지만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과시즘적 국민국가 담론이다. 두 작품은 식민과 탈식민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거울 이미지로서의 동질성과 연속성이 나타난다.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과 해방기 좌파의 민족 담론은 이처럼 동일한 지반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지반은 바로 '국민국가의 형상'이라는 세계적인 근대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국민국가 담론, 국민화, 저항, 계몽, 균열, 통합, 식민 담론, 거울 이미지

* 영남대학교 객원교수

I. 서론

일제 말부터 해방기를 거치면서 함세덕의 작품 세계는 신극에서 친일극, 그리고 좌파극으로 이행해간다. 그의 <거리는 쾌청한 가을 날씨(町は秋晴れ)>¹⁾(이하 <거리는>)는 1944년 『國民文學』에 일어로 발표된 친일극²⁾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고목>³⁾으로 개작되어 좌파 극으로 부활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짧은 시기에 친일과 반일 사이를 오가는 글쓰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함세덕은 '국민연극'⁴⁾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현대극장'의 주 멤버였으며 40년대 전반기 동안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한 연극인이다. 그는 국민연극에 대해 "국민적 의식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을 위하여 행해지는 예술적 업적"이라고 정의하면서 국민연극의 제재는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국책에 順應할 건전한 건설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고 指導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⁵⁾ 이는 "아시아 사람들을

- 1) 노제운, 《함세덕 문학전집 1》, 지식산업사, 1996, 번역본으로 인용. 아래 면수만 기재함. (원본은 일문으로 되어 있으며 『國民文學』, 1944. 11에 나와 있다.)
- 2) "친일극은 당시 다른 명칭으로 불리었다. 조선인도 일본 천황의 신하로서 국민이 되게 하자는 국민극,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고 선전하는 국책극, 대동아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결전극,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해야 하는 국어극이라는 명칭 등이 그것이다." (서연호, 『한국연극전사』, 연극과인간, 2006, 228면)
- 3) 김동권 편, 《현대희곡작품집(해방기:1945년~1950년)》 제5권, 서광출판사, 1994, 영인본으로 인용. 아래 면수만 기재함. (원본은 함세덕, <古木>, 『文學』, 1947년 4월호에 수록되어 있다.)
- 4) '국민연극'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1940년 8월 24일 일본의 '新協'과 '新築地'의 양극단이 당국에 의해서 해산된 후, 1941년 1월 정보국과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합작으로 마련된 '국민연극'으로서의 신극의 재편성, 설계도"에 의하면, 신극의 명칭을 '국민연극'으로 바꿀 것이 제시되어 있다." (양승국, 「1940년대 국민연극론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6집, 한국극예술학회, 1996. 7, 110면.)
- 5) 함세덕, 「新劇과 國民演劇」, 『每日新報』, 1941. 2. 8, 10, 11 (노제운 편, 《함세덕

모두 일본의 국민으로 가정하고, 그들을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려는 정책적 목표 아래에서 국민국이라는 말을 적절하게 변용하고 악용하였던⁶⁾ 제국주의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거리는>은 함세덕이 일본 전진좌에서 활동할 때 쓴 작품을 귀국 후에 발표한 작품으로, 일본 국민연극의 전범에 따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정황을 통해 볼 때, 함세덕이 일본의 국민연극을 선봉에서서 한국에 수입하는 입장에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⁷⁾

그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일’ 정서가 팽배해 있던 해방기에 이 작품을 좌파 색채의 작품으로 개작, 발표했던 것이다. 김재석은 이를 ‘시간과의 싸움’을 개작이라는 방식으로 극복한 경우로 보았다. “일제강점하에 발표했던 작품이기에 창작의 부담이 줄어들며, 역시 계몽·선전극이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만 바꾸어 넣는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공연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념의 문제만 바꾸어 넣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작가에게 있어 ‘이념’이란 단순한 제재의 차원이 아니고 전존재적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상화된 자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특히 예술 작품 내에서 이념의 변화는 내용과 형식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함세덕이 <거리는>을 친일의 부끄러운 과거 행적으로 여겨 폐기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식민 잔재,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제로 바꾸어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공연 욕심이나 계몽적 취향에 연루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국가가 부재한

문학전집 2》, 지식산업사, 447면에서 재인용)

6) 서연호, 『식민지 시대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21면.

7) 박영정, 『함세덕의 『어밀레종』에 관한 연구』, 『함세덕』(이상우 편), 새미, 2001, 39면.

8) 김재석, 『함세덕 친일극의 성격과 작가적 의미』, 『어문논총』 제37호, 경북어문학회, 2002, 96면.

상태의 피식민 주체로서 제국 일본의 국민으로 호명됨에 따른 주체 구성의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극인 함세덕은 일제강점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딜레마를 ‘국민연극’의 이념 안에서 성공적으로 해소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거리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함세덕의 대표적인 친일극 <거리는>이 해방기에 좌파극 <고목>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시대의 국민연극과 해방기의 좌파극 사이에 어떤 이념적, 혹은 담론적 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식민지의 작품이 해방기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 무대 위에 다시 올려진 예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확고한 친일 작품이 개작을 통해 해방기의 대표적 좌파극으로 변신한 사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 희곡사의 문체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반복 혹은 차이의 요소들을 규명한 후에 작품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연속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⁹⁾

이와 관련하여 김재석도 1940년대 후반기 함세덕의 희곡이 급작스럽게 돌출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 내에서 연속성을 지니고 이루어진 작품활동이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함세덕의 1940년대 전 후반기 작품을 관통하는 일관된 특징으로 계몽·선전을 꼽았다. 작가의 태도 면에서 일제강점하의 국민연극이 수세적 계몽·선전이라면 광복 후 작품들은 공세적 계몽·선전극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양 시기에 걸쳐 계몽·선전이라는 연극의 효용성에 집중했다는 점은 두 작품을 관류하는 중요한 동일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더 깊이 고구되어야 할 점은 해방기에 이르러 그가 이전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념을 것처럼 강력하게 또다시 계몽·선전할 수 있게 된 내적 동인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의 개작 양상 검토와 더불어 그러한

9) 김재석, 『1940년대 후반기 함세덕 희곡 연구』, 『어문학』 제92집, 2006. 6, 324면 참조.

개작을 가능하게 만든,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담론적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두 작품을 이어주는 보다 본질적인 원리가 ‘국민국가 담론’이라고 보고, 이 전제 하에서 논문을 풀어나가 고자 한다.

국민국가 담론은 ‘국민국가’의 국민을 창출해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층위의 언설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거리는>이 발표된 1944년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한 시기로서 ‘국민연극’이야말로 국민국가 담론의 가장 충직한 전파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 후에도 조선인들에게 남겨진 것은 다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였고, 짧은 해방기 동안 형성되었던 대부분의 담론은 또한 이 절체절명의 과제를 향한 헌사로서 기능한 바 있다. 본고는 일단 이러한 연속성이 두 작품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국가 담론은 다양한 국민화¹⁰⁾ 기제들을 통해서 구성되고 전파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먼저 두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국민화 기제들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작품들에 나타난 저항과 계몽의 논리를 살필 것이다. 희곡 작품은 담론의 실천 가운데 수반되는 저항과 계몽의 양상이 가장 극명하게 재현될 수 있는 장이므로 이를 통해 식민기와 해방기 국민국가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와 같은 저항과 계몽의 와중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담론상의 균열의 지점을 작품 내에서 찾아내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사용된 담론 전략을 드러냄으로써 두 작품의 차이점과 동일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0) 국민화는 학교와 군대, 공장, 종교, 문학, 그 외 모든 제도과 국가장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원리를 체현한 국민이라는 개조인간을 만들어낸다.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43면)

II. 국민국가 담론의 양상

1. 국민화의 기제들

함세덕의 <거리는>은 일제의 전시 총동원 체제하, 총력전¹¹⁾ 시기에 일본어로 발표된 희곡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당시 일본이 전쟁수행을 위해 국민들을 단기간에 ‘황국신민화’ 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국민화 기제¹²⁾들이 드러나 있다. 먼저, <거리는>에 나타난 일본 제국주의의 국민화 기제로는 ‘청년단’, ‘학교’, ‘마을회’, ‘군대’ 등이 있다.¹³⁾ ‘청년단’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작품 초두에 등장하는 청년단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¹⁴⁾

여자 청년단원 : 원 아주머니는...수고했더니요. 이런 일은 당연하죠.
아주머니집은 출정군인의 집인 걸요.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거에

11) “당시의 ‘총력전’이란 “국가의 綜合戰力”으로서, 이것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력전, 정치외교전, 경제산업전, 사상선전전, 생활전 등 각 戰線에서 戰力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각각이 “종합유기적으로 조화”되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변은진, 『조선인 군사동원을 통해 본 일제식민정책의 성격』, 『아세아 연구』 제46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2003, 205면)

12) 개개인의 신체가 국가라고 하는 통제기제의 시선에 노출되고,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조작되는 상황은 국민국가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일 것이다. 그제 일본의 군대거나 한국의 군대거나, 일본의 학교거나 한국의 학교거나 상관없이 근대적 국민국가는 모두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다.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도서출판 역락, 2006, 49면)

13) “국민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든 국가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니시카와 나가오, 앞의 책, 166면)

14) “일제는 전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 1945년 국민 근로동원령 등 여성을 포함한 전국민 총동원 체제가 만들어졌다.”(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24면)

요.(2층으로 올라간다) (<거리는>, 557면)

위 인용은 여성 등장인물의 씩씩한 대사를 통해 극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출정 군인’의 집임을 알리고, ‘출정 군인’을 돕지 않는 일은 ‘천벌’과 연결될 정도로, 출정이 명예로운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¹⁵⁾

두 번째는 ‘학교’이다. 일제는 학교 교육을 통해 ‘빈터 이용’, ‘식량 증산’ 등의 계몽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쿠라조 : 뿌리 근처 땅을 갈고 있기에 멈추라고 했더니 빈터 이용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겠어. 여학교를 갓 졸업한 주제에 건방지기는...

요시 : 아, 대학교의 이즈미 선생도 이런 무우를 키워서 동네에 나눠주고, 동네 모두가 식량증산에 열중하고 있으니 쓰미코가 그러는 건... (<거리는>, 565면)

식민지 권력은 지배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하여 지적 헤게모니 창출 노력과 함께, 미시적 수준에서의 인간 정치를 발전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체제는 ‘근대의 실험장’으로, ‘진리의 강제’가 이루어진 체제이다. 이 과정은 식민지적 지배의 기본적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타자로부터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인간형을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특징지워진다.¹⁶⁾ 여기서의 여학교를 졸업한 쓰미코나 대학교의 이즈미 선생을 건전하고 올바른 사교의 인간형으로

15) ‘국민 국가’가 군사력과 생산력 증강을 국가 목표로 ‘국민’을 ‘인구’, 즉 병력과 노동력으로 환원할 경우 ‘병역’은 ‘국민화’의 열쇠가 된다. 그때 ‘국민’은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과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 전자만이 ‘국민’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앞의 책, 26-27면)

16)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김진균, 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1997, 77면.

표상함으로써 계몽의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세 번째는 ‘마을회’이다.

쓰미코 : 오늘 마을회의에서 검사하러 온다고 했어요. 빈터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조사하러 온대요. (<거리는>, 563면)

요시 : 요새 저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조차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도나리구미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거리는>, 570면)

위 인용에서처럼, 당시 제국의 주민들은 ‘마을회’를 통해 제국 권력의 시선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¹⁷⁾ 자기 집 느티나무를 자르라고 하는 여론에 대해 쿠라조는 그것이 ‘마을회장’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쿠라조의 아내, 요시는 개인보다 마을회, 동네의 호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마을회’야말로 제국의 담론을 전파,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말단 세포 조직이었던 것이다.

네 번째는 ‘군대’이다.

신이치 : 남방으로 가려고 해요. 군속으로요. 아까 역에 내렸을 때 군속 모집의 포스터가 나와 있길래 신청해 놓았어요. (<거리는>, 581면)

<거리는>은 원래 일본 전진좌에서의 공연을 위해 집필되었다고 하지만 『국민문학』에 실림으로써 사실상 조선인의 ‘군사 동원’을 고무하는

17)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지속적이고 철저하며 어디에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지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시 수단을 감추어야 한다. 그 감시는 사회전체를 각각 대상으로 만드는 얼굴 없는 시선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도처에 매복되어 있는 수천개의 눈이고, 움직이면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온갖 주의력이며, 위계질서화한 긴 그물눈이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데 그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제의 여러 식민정책들 중에서도 식민지 민중에 대한 억압적 성격과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논리의 이중성(-자기분열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식민지 민중을 직접 전쟁터에 동원하는 것, 그것도 ‘內鮮一體’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국민’, ‘天皇의 臣民’이라는 명분을 붙여 식민지 청년의 손에 직접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식민지 ‘동화정책’의 허구적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절점이라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군대’는 작품 내에서 가장 심미적인 장치를 통해 그려내고자 한 국민화 기체에 해당한다.

한편, <고목>의 도입부에서도 <거리는>에 등장했던 청년단이 등장하며, 그들은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妻 : 청년단들이 사전에 뚝을 막았기 망정이지 그란했으면 원음이 몽탕 잠길 번 했어. (<古木>, 543면)

여성의 활동도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고목>의 배경은 남한 사회이지만 이 작품이 추구하는 사회는 사실상 북한이었다. 실제로 해방 직후 북한은 국가수립시기에 일제 말기의 전시총동원체제에 비견되는 이른바 건국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여성 노동력의 동원에 열중하였다.¹⁹⁾ <거리는>의 청년단이 <고목>에 그 정체성만 바뀐 채²⁰⁾ 재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와 당시 남한 좌파 세력이 준거로 삼은 해방기 북한 정권의 체제적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한편, <거리는>에서와는 달리, <고목>에서는 학교가 여지없이 비판

18) 변은진, 앞의 논문, 201면.

19) 이상우, 『북한 회곡에 나타난 이상적 여성-국민 창출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 21집, 2005. 4, 289면.

20) <거리는>의 청년단은 일제의 첨병 노릇을 하던 청년단이고, <고목>의 청년단은 일제 잔재, 봉건 잔재 청산을 위해 활동하던 좌파 청년단이다.

되고 있어 주목된다.

진이 : …응, 허지만 싸울 만큼 싸우구 졌으니까 후회되진 않아. 학교에 나가게 된 애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감옥생활같은 교육을 받게 될 게 걱정이지.

초국 : 퇴학은 마졌지만, 그놈의 거 시원하게 한번 잘했다. 그 교장녀석 꺼덕대구 돌아댁기는 꼴이란, 우리두 눈꼴이 서서 못 보겠드라. (<古木>, 562면)

이는 <고목>이 일제시대에 황국신민화 교육을 하던 학교 비판을 통해 ‘일제 잔재 비판’이라는 주제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고목>에 드러난 당시 국민화 기체로는 그 외에도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등이 있다.

‘마을회’와 ‘군대’는 <고목>에 등장하지 않는다. ‘마을회’는 <고목>에서 영팔, 수국, 주변 사람들 등, 조직은 아니지만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고목>에서 군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해방 직후 북한과는 달리, 남한 사회에서 ‘군대’가 지니는 함의는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저항과 계몽의 논리

‘국민국가’는 ‘국가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도 공급하고 있다.²¹⁾

일제는 총력전 체제를 통해 일본 내지를 비롯한 식민지 조선의 ‘국민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국가 장치를 통한 ‘국민화’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제부

21)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13면.

터는 작품에 나타난 저항 논리와 그에 대한 계몽 논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거리는>의 쿠라조는 자신의 유서 깊은 느티나무가 쓰미코의 빈티이용 때문에 다치는 것에 대해 ‘동네나 나라에 손해’라는 논리를 편다. 이에 쓰미코는 당시 전시 국책인 ‘옥상 원예’를 소개, 선전하면서 쿠라조를 ‘에고이스트’로 몰아붙인다. 쿠라조는 또한 느티나무를 공출하라는 유키토모의 요구에 대해 ‘할아버님의 유언’을 들어 저항한다.

쿠라조 : 여보게 마을회장, 공목(共木)의 뜻은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님의 유언이 있어서... (<거리는>, 568면)

이에 유키토모는 ‘조상의 유언’보다 ‘나라’가 중요하다고 계몽한다.

유키토모 : 허나 다이코쿠야상, 유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존망의 시기에 있지 않은가. 황국(皇國)의 흥망(興亡)은 우선 비행기와 배의 문제에 달려 있네... (<거리는>, 568면)

이는 쿠라조가 내세우는 전통적인 ‘효’ 개념에 ‘충’을 대입시킴으로써 그의 저항 논리를 제국의 이데올로기 안으로 회수하려는 전략이다. 일본은 천황 숭배를 일본의 국가 윤리로 확립시키기 위해 충성이나 효와 같은 유교 덕목들을 제국 체제와 연결시킨 바 있다.²²⁾ 이는 물론, 조선인의 ‘황국 신민 만들기’에도 이용되었다. 함세덕 역시 <거리는>에서 유교적인 전통 가족 체계에서의 ‘조상 숭배’ 또는 ‘효’ 관념을 더 큰 국가 가족

22)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194면.

의 개념인 ‘충’ 안으로 단일화시켜 해소하려는 담론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²³⁾ 식민지 규율권력이 가장 심층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지점은, 바로 식민지배정책의 방식과 의도가 식민지가 종래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식의 양식과 결합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²⁴⁾

한편, <고목>에서도 쿠라조와 마찬가지로 고목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거북의 저항 논리가 제시된다. 그는 전제민인 처남, 영팔이 가구 장사를 하기 위해 고목을 사겠다고 해도 ‘선조의 유지’를 들어 거절하고, 옆집 진이가 고목 밑에 무배추를 심으려고 하자, 이 역시 ‘동리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면서 비난한다.

巨福 : 지금 와서 빈티니 아니니 언쟁했댔자 소용없는 일이구... 무배추 심그는것두 좋지만, 그것때문에 이런 유서깊은 고목이 죽는다는 건 동리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야. 그렇니 뿌러진 터럭지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러라. (<고목>, 549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리는>에서 쿠라조가 한 말이 여기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거북의 말에 진이는 쓰미코처럼 비판하는데, 이 때 쓰미코의 ‘에고이스트’, ‘개인주의’라는 표현은 ‘팻쇼’, ‘독재’로 바뀐다. <거리는>에서 국민통합 이데올로기의 방해물로서 ‘개인주의’가 설정되었다면, <고목>에서는 ‘파시즘’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이노우에 테쓰지로가 1911년 9월에 발표한 논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천황 숭배를 일본의 국가 윤리와 확립시키기 위해 이노우에는 가족체계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즉 핵가족(개별가족) 체계와 국가적 가족(종합가족) 체계이다. 사회구조를 이렇게 구분하여 충과 유교의 효개념을 융합시켰는데, 이 결합은 유교와 일본이라는 가족국가의 수장(首長)인 천황과의 관련성을 원활하게 했다.”(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 함동주 역, 앞의 책, 195면)

24) 이해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식민지」,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2, 277면.

쿠라조의 ‘할아버님의 유언’이라는 저항 논리에 대한 유키토모의 계몽 논리가 ‘나라의 중요성’이었다면, 거복의 ‘선조의 유지’에 대한 동정의 계몽 논리는 ‘새 시대를 위한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이었다.

東正 : (泰然히) 네, 저나무는 작년 이맘때 수국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해군에 공출하기로 하셨던게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서울 해군무관부에서 소위가 내려왔구, 역장, 군수, 경찰서장을 위시해서 군관민이 전부 나와 이 나무의 장행(壯行)을 축하했던것입니다. 막빌려구하든참에 력사적인 일황의 정전방송이 있어 군함재료의 공출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니까 그때 공출하신셈 치구 기부 해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의 온갖 장해물인 일제의 잔재를 뿌리 췌 뽑아버리는것두 될겸, 일석 이조일 것입니다. (<古木>, 553면)

이 시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고목>에서 ‘선조의 유지’는, ‘창고를 지으라’는 <거리는>에서의 개인주의적 유언과는 달리,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애국주의적 언설이었다는 점이다.

巨福 : 하선생, 저 나무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때 나라를 위해서 유익히 쓰도록 하라고, 아버지께 유언하신 나무요. (<古木>, 553면)

거복 할아버지의 유언은 형식적으로는 유키토모의 계몽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나라’의 내포가 다중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이 극이 의도한 ‘아이러니’의 효과이다.

東正 : 그유언을 아버지께서 수국아버지한테 계승시키시고 돌아가신 건 아마 이 동래서 몰으는 사람이 없을 쥘니다. 하지만 수국아버지께서, 작년 공출을 자진 신청하실 때두군수와 서장한테 나

라를 위해서 써달라구 하시지 안했습니까? (<古木>, 553면)

거복은 일제시대 때에는 그것을 ‘일본 제국주의 나라’로 해석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기에 와서 그의 해석은 달라졌다.

巨福 : 그, 그땐 어떻게 내나라지 사실 분간을 못했었요. 허지만 이렇게 해방이 되서 내선일체란 셋밖안 거짓말이구, 우리는 결코 일본놈의 황국신민이 아니라는것을 확실히 알았요. 그렇니 이번에는 말로 우리 대한 나라를 위해서 쓸 작정이요. (<古木>, 553면)

이제 그 ‘대한 나라’로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동정이 말하는 ‘새 시대’는 거복이 의미하는 ‘대한 나라’가 아니다. 거복의 지향이 ‘우파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면, 동정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좌파 국민국가’의 수립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복의 저항 논리와 동정의 계몽 논리가 완벽하게 충돌하게 된다. 그것은 <고목>의 이항대립은 <거리는>에서처럼 ‘개인’ 대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나라’ 대 ‘나라’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동정은 보다 심화된 계몽 논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거리는>의 유키토모처럼 개인주의의 폐해를 들어 국가주의를 선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정은 우선 오각하의 언설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 오각하의 언설을 계기로 동정의 새 논리는 숨통을 찾기 시작한다.

妻 : 또 뭐라구 하시드라...참... 저, 각하게서 죽으라문 죽구, 살라문 살구, 모-든 것을 각하게 매끼라구 하시드라 그리구 명령을 기대리구 있다가, 명령이 떠러지는데루 행동하두록 하라구 하시드라.

楨伊 : (大會場을 흘겨보며) 주책없는 양반 같으니, 자기가 뉘데 죽으라면 죽구 살라면 살란말이야? 외놈들이 천황만 믿구 따라갔다가

나라를 망친걸 두눈으루 똑똑히 봤는데, 못봤으면 몰를까 본 이상 어떻게 그대위 어리석은것을 되푸리하란말이야? (<古木>, 566-567면)

위의 대사를 통해서서 과거의 식민 담론에 대한 해방 후 함세덕의 비판적 조망을 읽을 수 있다. 일제 시대 천황제의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지닌 맹목성에 대한 통찰은 <고목>에서 그대로 오각하(이승만)에게 투사되어 재현된다. 함세덕은 천황제와 오각하를 동일화시킴으로써 오각하를 지지하는 거북을 파시스트로 명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孟僉知 : 거기다 피를 흘려야 한다구 하셨지 뭐라구 하세요
妻 : 응, 참 피를 흘리라구 하시드라. 우리 한국이 독립이 않되는건 삼십팔도선 때문이라시드라. 그러니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구, 기운있는 사람은 기운을내서 모든 힘을 한데 뭉쳐가지구, 때가 오는 데루 피를 흘리자구 하시드라. 그래서 그 선을 끊어버리자구 하시드라.

穰伊 : 망녕이 들리셨나봐.(하고 大會場 쪽을 쏘아본다) 피는 자기나 흘리지 왜 남더러만 작구 흘리라는거야.(미국하구 아라사하구 영국이 의론해서 독립을 식혀준다구 공공연히 약속했는데, 뺏이 답답해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우리 읍 같은건 대포 한방이면 날러갈텐데, 맨주먹으로 어떻게 비행기와 전차 앞엘 대들란 말이에요? (<古木>, 567면)

즉, 함세덕은 <고목>에서 천황제(파시즘)=오각하=거북의 논리를 이끌어냄으로써 거북이 지지하는 ‘우파 국민국가=파시즘’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내었다. 이는 한편으로 ‘좌파 국민국가=민주주의’라는 담론의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북의 저항 논리에 대한 동정의 계몽 논리인 ‘일제 잔재 청산’이 표면적으로는 식민 담론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또 다른 국민국가 담론의 형성을 위해 마련된 담론적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 목표는 바로 북한을 전범으로 한 좌파적 국민국가였던 것이다.

3. 균열과 봉합

<거리논>에서 앞서 살펴본 쿠라조의 저항 논리와 유키토모의 계몽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쿠라조가 굴복하지 않자, 극은 방법을 선회하여 유희적인 회유에 들어간다.

유키토모 : 그래, 공출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지로 해야 되니까 권고나 강제로는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지. 그래서 나도 구태여 하라고 말하지는 않겠네. 하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것이네...헌데 물건을 선선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마다 ‘다이코쿠야의 느티나무도 솟아 있으니 우선 그 나무부터...’라고 핑계를 대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 않겠네. 잘 생각하고 대답하길 부탁하네. 어이쿠, 바쁠 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네. (<거리논>, 569면)

이 장면에서 식민 담론의 균열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와 강제 사이의 균열이다. 유키토모의 설득에 대한 쿠라조의 대응은 아들을 출정시킨 ‘명예’를 내세우는 것이다.

쿠라조 : 무슨 소리야. 이봐, 우리집은 명예스런 집이야. 느티나무는 공출을 못 하지만 자식을 훌륭하게 바쳤어.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 (<거리논>, 570면)

쿠라조의 내면 속에는 언제나 명예/수치의 이항대립이 존재한다. 출정했던 신이치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쿠라조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심한 수치심을 느낀다.

쿠라조 : 나는 쫓겨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냐. 당당히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그 뻔뻔스러운 태도가 싫은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전 별품을 받고…천인침도…기원무운의 깃발까지 받고…거기다가 전차역까지 배웅해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간 놈이 감히 돌아올 수 있어? 야 이놈아, 내일부터 무슨 낮으로 동네를 다닌단 말이야? (<거리는>, 580면)

그러나 이러한 쿠라조의 수치심은 신이치의 대반격을 받게 된다. 쿠라조가 강조하는 ‘명예’는 신이치가 그를 ‘인색하다’고 평가함으로써 인해 손상되고, 쿠라조의 수치심을 역이용하여 신이치는 다음과 같이 확고한 제국의 담론을 제시한다.

신이치 : 저도 뻔뻔스럽게 이 동네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몇 번이나 생각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 가열한 전국을 눈앞에 두고 그 정도의 이유로 죽어버린다는 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는 못해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리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거리는>, 581면)

신이치는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것은 전국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것임을 말한 것이다. 신이치는 쿠라조에게 ‘나라를 위하는 것’은 그의 체면을 살리는 일이고, 수치심을 없애는 길임을 알려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느티나무를 공출하는 것이다.

신이치 : 예. 제 대신에 응소한다는 생각으로 공출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 (<거리는>, 582면)

신이치의 말에 설득 당한 쿠라조는 마침내 느티나무를 자진하여 헌납하게 된다.

쿠라조 : (깃발을 느티나무에 건다. 죽 늘어서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들 신이치의 수치스러운 일은 이 느티나무로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나무를 헌납하겠습니다. 자식이 출정했을 때 여러분에게서 받은 전별품은 잊지 않겠습니다. 총액 308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일 육군성에 헌납하려고 하는데 부디 승낙해주십시오. (<거리는>, 583면)

이와 같이 느티나무를 헌납함으로써 쿠라조는 청년단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화해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극은 마무리된다.

(마을회장이 박수를 치자 일동, 우뢰와 같은 손뼉을 친다. 기코자에몽, 때에 맞춰 나무 끄는 노래를 드높이 부르며 첫 도끼를 힘차게 휘두른다. 우듬지에 앉아 있던 새들이 놀라서 일제히 날아간다. 일동, 쾌청한 가을의 하늘에 뻗어 있는 느티나무의 우듬지를 쳐다보고 만감이 교차한다.) (<거리는>, 583면)

위 지문으로써 이 작품이 의도한 국민국가 담론이 완성된다. 일동은 박수를 치고, 느티나무에는 도끼가 내리쳐진다. 이는 국민화를 방해하는 모든 개인주의적 행위에 대한 결별을 의미한다. 쾌청한 가을의 하늘은 모든 이기적 습성과 감정이 청산된 ‘국민’으로의 재탄생에 대한 축하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담론의 균열은 쿠라조가 회심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화답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봉합된다.

파시즘을 기반으로 한 권력이 자기정당성을 갖는 핵심논리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 또는 민족공동체(국가·국체·인종공동체)의 방위나 발전에 봉사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의 기반 역시 ‘가장 소박한 민족공동체 논리’라고 할 수 있다.²⁵⁾ 함세덕은 <거리는>에서 자유의지/강제 사이의 균열을 먼저 전통적 가치인 명예/수치의 이항대립으로 전화시킨 후에 이를 가장 소박한 ‘마을 공동체와의 화해’를 통해 봉합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일제의 ‘동아 협동체론’을 정초했던 미키 키요시는 동양의 문화전통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동양적 휴머니즘’으로 보았다. 서양의 휴머니즘이 개인주의적인 것에 반하여 동양의 휴머니즘은 공동 사회에서의 인륜적 관계들 그 자체 속에 있다는 것이다.²⁶⁾ 함세덕은 이와 같은 일제 동양 담론의 자장 안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휴머니즘적 연대를 주체화함으로써 식민 담론의 폭력적 강제성을 은폐시키고 있다.

한편, <고목>에서도 역시 자유의지/강제 사이의 균열은 발견된다. 그러나 해방기에 이르러서는 그 함의가 달라진다.

巨福 : 그, 그때 어떻게 내나라지 사실 분간을 못했었오. 허지만 이렇게 해방이 되서 내선일체란 셋밖안 거짓말이구, 우리는 결코 일본놈의 황국신민이 아니라는것을 확실히 알았오. 그렇니 이번어야말로 우리 대한 나라를 위해서 쓸 작정이요. (<古木>, 553면)

25) 변은진, 앞의 논문, 207면.

26) 미키 키요시, 유용태 역, 『신일본의 사상 원리,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최원식, 백영서 편), 문학과 지성사, 1997, 56-57면.

위에서 거북은 일제 때의 자진 공출은 거짓말에 속아서 한 잘못된 ‘자유의지’의 행사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제 식민 담론의 봉합이 지닌 허구성을 이미 다 간파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자진이든, 강제든, 이와 같은 이항대립은 의미를 잃게 된 것이다.

巨福 : ...그럼 지나가는말루 한 마디 한걸 강제루 리행하랴구 하는 거요?

東正 : 강제가 아니라, 수국아버지께서 정정당당히 리행하셔야 할겁니다... (<古木>, 582면)

동시에 그것은 명예/수치의 이항대립으로 전화시킬 수도 없게 되었다. 아래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면 따위는 이제 낡은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1) 巨福의소리 : 기부는 ...자유의사야...으흥, 으흥,
郭牧師 : 아무리 자유의사라두 거북씨 체면이 있지 않소?

郭牧師 : ...우리 애국당 지부의 체면은 뭐겠오?...
우리 지부의 체면은 뭐며, 우리들 오 만 읍민의 체면은 뭐겠오?

巨福 : 체면이 무슨 기급할 체면이야... (<古木>, 579면)

2) 妻 : 당신두, 쓸대없이 헐걱정 안헐걱정 다하구 있오. 아, 듯다가 저 싫으면 나오는것이지, 체면이 무슨 체면이겠오? (<古木>, 569면)

3) 郭牧師 : ...재정부장께서 저 행자나물 바치시겠다구 자진해서 말씀하시드니, 이제와서 뒤를 빼시니가 말이요. 탄지부에선 모두들 몇십만원씩 돈을 내구, 주단 광목 기타 물품을 거출들

하는데, 우리고을만 말쑥하다면, 우리 지부의 면목이 뭐가 되겠오? (<古木>, 559면)

위의 3)에서처럼 다만 광목사만이 아직도 ‘면목’을 들어 거북을 설득하려고 할 뿐이다. 그는 이 극에서 거북과 함께 식민기 동안 강제, 공갈, 협박을 일삼은 친일 우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체면’이 담론 구성력을 잃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것은 ‘이데올로기’이다.

巨福 : 대단칠 않다니? ...가족들의 사상문젠, 우리 애국당 간부를 뽑는 데있어, 여간 큰 문제가 아니야...오각하계선 우리 애국당 지부 역원들 가족에겐, 빨갱이는 물론이거니와 분홍이나 회색두 있어선 안 된다구 말씀하셨어. (<古木>, 569면)

함세덕은 위 거북의 대사가 암시하는 것처럼, <고목>에서 해방기가 지닌 자진강제의 균열을 좌파 이데올로기/우파 이데올로기의 이항대립으로 전화시킬 전략을 세운 것이다.

巨福 : 초국이, 저자가 우리집 식구들을 충동일 식혀가지구, 이 나물 버 갈려구 하구 있네.

樵國 : 이 사람아, 자네가 자진해서 내주겠다고 아까 안 그랬나? ... (<古木>, 584면)

巨福 : (窒息할듯한 抑壓을 느끼며) 이놈들아, 나를 가운데다 몰아놓구, 느이들이 재판할 작정이냐? 동래서 애비 때리 늑 잡아다놓구 불기 때리듯, 나를 때릴 작정이냐?... (<古木>, 585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한번 조작된 담론에 속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함세덕은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 있다.

東正 : 조선의 독립이란 삼천만 민족의 한사람 한사람의 혈관속에 잠재해있는 이같은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고는 절대루 니루어질수 없습니다. 이잔재를 깨끗이 청소함으로써만 우리가 희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울수 있습니다. (<古木>, 586면)

위 대사는 동정의 청산주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진정한 탈식민적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일제 잔재를 ‘청소’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고목>에서는 자진강제의 균열을 봉합하려 하지 않고 청산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진이든 강제든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과거는 청산되어야 할 그 무엇이 된 것이다. 식민기의 주된 질곡이었던 자진강제의 균열을 넘어선 곳에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있었다. 그것은 식민주체인 일본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것이었다.

寧八 : 조선 나와보니 이것이 내 고국인가 하는 생각이 작구만 나요. 여기 나올때야, 학교 운동장에서 거적깔구 지내다 다시 겨들아갈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기보단그래도 일본사람들이 다정하구 따뜻해요.같은 수용소에 있는 만주서 온 어쁜 령감은 날보구, 일본 들어간다구 친일파라구 하드군요. 허지만 사실에 있어, 조선 나와 만년이 넘지만, 따뜻한 밥한덩일 얻어먹었으면 개잡놈이예요. (<古木>, 587면)

<고목>에서 표면에 내세우는 주제는 ‘일제잔재, 봉건잔재 청산’이지만, 실상은 이데올로기가 중심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은 우파 국민

위에서 보는 바처럼 해방기에 나타난 자진강제의 균열은 쉽사리 봉합

국가/좌파 국민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좌파는 우파 비판에서부터 존재 성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극의 모든 초점은 우파 비판에 놓여져 있다. 우파의 친일성, 봉건성을 비판하는 것이 곧 좌파 국민국가의 국민화를 위한 계몽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파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남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한보다는 일본 사회가 더 낫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巨福 : …공산당에선 내땅두 이렇게 뺏아갈꺼야…오늘 같은 똑같은 방법으루, 하라버님때 부터 내려오는 이천석직일 뺏아갈꺼야…나를 막다른 골목에다 몰아넣놓구…뽀작뽀작 못하게 칭칭엷어 놓구…내, 이, 이천석직일 송두리째 빼, 뺏어 갈꺼야. (하고 惡寒이 끼친듯 全身을 부르르 떨드니, 負傷한 김승같이, 무거운 거름새로 마루로 올라간다. 또다시 暴雨가 한번 쏟아질려나보다. 바람이 어데서인지 획 불어와, 마루 一便에 쏘다 놓았든 將棋뽀을 휘날린다. 巨福, 얼굴과 몸에 휘날려오는 將棋뽀을 털라고 하지도 않으며 房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잠근다. (妻를 先頭로 나갔든 一行 다시 돌아온다.) (<古木>, 588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목>에서 거북의 기부는 결국 강제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강제를 하늘의 뜻 비슷한 분위기로 몰아간다. 위 지문이 그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패배의 징조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緊張이 풀린 一同의 응성거리는 和氣靄靄한 가운데 기운찬 樵國의 洗練된 첫 도끼가 「쟁」 하고 나무 밑뚱에 떠러진다. 一同 歡聲을 친다. 茂盛한 가장구에서 쓰르레미가 린, 린, 린, 린, 리. 하고 이어 呼應한다. 이어 房에서는 도끼에 자신의 肋骨를 찍히는듯한 巨福의 悲痛한 呻吟소래가 들려온다. 幕의 템포와 함께, 이 도끼와 쓰르레미와 呻吟소래는 一致

된 하-모니를 가지고 繼續된다. 無生物과 昆蟲과 人間의 이 세가지소래는 새로운 時代에의 建設과 吾不關焉의 中立과 歷史에 落伍된 反動者의 墮落한 末路의 號泣 그대로를 暗示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목>, 588면)

이처럼 거북의 몰락은 ‘역사에 낙오된 반동자의 타락한 말로’로 묘사된다. 이는 봉건 지주의 몰락은 세계사적 필연성이요 진리의 체현임을 표현한 것이다.

식민기의 작품 <거리는>에서는 자유의지/강제의 균열이 쿠라조가 마을 사람들과 훈훈한 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봉합되어 있다. 함세덕은 <거리는>에서 ‘효’, ‘충’, ‘정’ 등을 매개로 하여 피식민자들이 식민 담론의 규준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전략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거리는>이 일본 제국의 국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성과 조작성을 제국의 말단 조직인 ‘마을회’를 통해 봉합하고자 했다면, <고목>에서는 남한 민중들을 좌파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호명하는 과정에서의 허구성을 봉합하기 위해, 역시 거북 주위의 민중들을 끌어들이었다. 이는 해방기 좌파의 민족 담론에 속한다.

그러나 <고목>의 거북은 쿠라조와는 달리, 끝까지 기부를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데 함세덕은 <고목>에서 이를 봉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민중의 단결에 의한 ‘강제적 봉합’의 필연성을 말하고자 함이기도 하지만 <고목>이 해방기 남한 사회에서 좌파가 위기에 처해가는 상황에서 집필되었기에 리얼리티 면에서 ‘완전한 봉합’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함세덕은 좌파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관념을 강하게 어필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리는>의 이항대립이 개인/국가라면 <고목>에서는 국민국가/국민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는>에서는 개인을 국민화시킬 수 있는 청년단, 학교, 군대, 마을회, 등의 국민화 기제가 많이 동원되지만, <고목>에서는 오히려 국민화의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이데올

로기적인 계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리는>에서는 쿠라조의 깨끗한 승복을 통해 강제가 자유의사로 전화된 것으로 재현되어 있는 데 비해, <고목>에서는 거복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강제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도 작용하였으리라고 본다. 즉, <거리는>이 보다 억압적인 시대의 작품으로서 그 속에 권력의 모순이 조금도 노골적으로 그려질 수 없었던 데 비해, 해방 후의 <고목>은 그 강제성이 당위로 인식될 만큼 국민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강제에 대한 재현의 자유가 확대된 시기의 작품이기에 나타난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III. 국민국가 담론의 거울이미지

<거리는>에서는 나라를 위해 아들을 바치는 명예스러운 국민상의 이면에 조상의 유언에 연연하여 느티나무를 선뜻 기부하지 못하는 쿠라조라는 개인이 존재한다. 규율 중심의 권력은 언제나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개인’을 상대적 대상으로 갖기 때문이다.²⁷⁾ 그는 기부가 싫지만, 가까운 마을회 사람들의 호의를 외면하지 못하여 결국 기부에 응한다.

온전한 국민화의 목표는 국민의 자발성, 자유의지에 의한 국민으로서의 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단기간에 국민으로 호명되어야만 했던 당시 조선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발성과 강압 사이의 갈등이었다. 함세덕의 친일적 글쓰기에는 이처럼 식민 담론에 의해 호명된 대리인(agent)이면서도 한편으로 봉합될 수 없는 분열의 삶을 살아가는 식민 주체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²⁸⁾

27) 미셸 푸코, 앞의 책, 247면 참조.

이는 해방기에 개작된 <고목>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거복은 일제 때 자진해서 고목을 헌납하기로 했었다(그는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성공적으로 국민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방 후 그는 우파 권력에 붙어 다시 고목을 자진 헌납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헌납에 제동을 거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동정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다. 그들의 논리는 우파에 자진 헌납하는 것은 개인의 사욕을 위한 일제잔재에 속한다는 것이다.

東正 : 일제잔재란 별게 없습니다. 외정시대에 군용재루 헌납하여, 해군대신의 감사장을 받아가지고 행세를 해보시려든 그 비루하고 오욕된 생각을, 해방후의 오늘까지 고데루 가지고 오셔서, 또다시 벼슬이나 리권이라두 하나 잡아보실려는 그 부패한 때를 말하는것입니다. (<古木>, 586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동정이 속해 있는 좌파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東正 : 그런의미에서 이나무를 기부해주신다는건,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나라를 위하는 길일뿐아니라, 수국아버지자신께서 목욕하시는 길ियो, 나아가 진정한 이땅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추진시키는 길일줄 압니다. (<古木>, 586면)

그러나 좌파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거복에게 자진/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거리는>에서 ‘조상의 유언’은 쿠라조에게 어느 정도 진지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으나 <고목>에서 ‘선조의 유지’는 기부 거부를 위한 단순한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다. <고목>에서 개인

28) 박수연, 「내재성 부재의 주체와 문학적 종착지」, 『친일 문학의 내적 논리』(김재용, 김화선, 박수연 외), 도서출판 역락, 2003, 56면 참조

은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저 탐욕 뿐인 실체로서 그려진다.

<거리는>에서 쿠라조의 개인주의는 마을 사람들의 일치된 호의에 의해 해소되고, 그는 국민화의 길에 자율적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목>에서 거복은 끝까지 기부를 거부한다. 그의 타락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미 ‘우과 국민국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결국 거복은 마을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부하는 처지가 된다. 그러나 작품 내에서 이러한 강제성은 정당화되어 있다. 특히, 그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이라는 아우라를 통해 제시된다. <고목>에서는 개인의지의 자유로운 행사나, 강제나 하는 측면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고목>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오직 헌납의 역사성이다. 비록 강제일지라도 선한 역사성 앞에 헌납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이는 좌파 권력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일제 시대에는 개인을 국민으로 호명하는 것이 일차적 필요였다. 따라서 개인주의를 청산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개인을 국민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민화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을 각각의 국민국가 안으로 부르는 것이 필요했다. 그 가운데서 좌파가 자신들의 담론 안으로 사람들을 소집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항으로 삼은 것은 바로 좌파 이데올로기가 지닌 ‘역사적 필연’이라는 진리성의 강조이다. 당시 좌파에게는 이 개념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위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것은 반친일이라는 도덕적 도구를 이용하여 더욱 효과적이 되었다.²⁹⁾ 좌파의 친일 전력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방기 민중들

29) “계급 투쟁의 서사는 그것의 ‘진리’를 도덕과 결합함으로써 멜로드라마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 양상은 계급 투쟁이 민족적이고 국가적 기획이 되었던 상황, 즉 민족 해방이라든가 국가의 수호를 절대적 과제로 하는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신형기, 『총력전과 멜로드라마, 그리고 월드컵』, 『당대비평』 통권 제20호, 생각의 나무, 2002. 9, 141면)

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잔재, 봉건잔재 청산’이라는 도덕적 구호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이면적으로는 ‘좌파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담론화에 주력하였던 것이다.³⁰⁾ 국민화의 경험이 있는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명분을 내세운 국민국가 담론에 쉽게 포획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거리는>과 <고목>의 공통점은 둘 다 개인의 주체성이 삭제된 자리에 국민국가 담론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식민기나 해방기나 개인은 존재할 수 없었다. 얼핏 반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식민기와 해방기가 이와 같은 동질이형성을 지니고 있기에, 함세덕은 쉽게 친일문학을 좌파문학으로 개작할 수 있었다. ‘친일’을 비판한 흔적이 <고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더 큰 국민국가라는 괴물에게 다시 잡아먹힌다. 그것은 제국의 담론에 포섭된 경험의 거울이미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거리는>과 <고목>은 식민과 탈식민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동질성과 연속성이 나타난다. <거리는>이 일본 제국주의가 지닌 모더니티의 폭력적 논리를 보여준다면, <고목>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폭력이 정식화되고 일반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이데올로기적 진리요 역사적 필연이라는 논리로 포장되어 있다.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과 해방기 좌파의 민족 담론은 이처럼 동일한 기반 위에 놓여 있다. 그 기반은 바로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세계적인 근대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식민기와 해방기, 한국 전쟁, 그리고 이후 남북한 정권이 걸어간 근대화 노정을 추동해온 공동의 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³¹⁾

30) 한국 사회주의문학운동이 현실정치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에 빠져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김성수, 『일제강점기 사회주의문학에 나타난 민족 및 국가주의』, 『한국 근대문학과 민족·국가 담론』(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명출판, 2005)

IV. 결론

함세덕의 희곡은 다양한 변전을 겪지만 작품의 근저에 동일하게 가로 놓여 있는 것은 ‘국민국가’라는 괴물이다. 그것은 함세덕의 주체성을 유지시켜주면서 한편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요동치게 한다. 함세덕은 그 괴물의 등에 타고, 나름의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나 그 주체는 요동하는 주체이며, 조작된 주체이다.

그 요동, 분열 안에 국민국가 담론의 틈이 존재하고, 거기에 탈식민의 논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된다. 이 틈이 국민국가 담론의 급소이고, 그 급소를 통해 괴물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 정체가 드러난 괴물은 이미 괴물이 아닌 것이다.

<거리는>에서 그것은 자유의지/강제 사이의 균열로 나타났다. ‘국민연극’이라는 기치 하에서 창작되었지만 일체의 국민화 프로젝트가 지닌 전체주의적이고 모순적인 성격들이 고스란히 극의 무의식 속에 재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함세덕은 이러한 균열을 개인주의의 청산과 가부장적 국가주의의 확립을 통해 봉합하고자 하였다.

<고목>에서도 자유의지/강제 사이의 균열이 드러나 있다. <고목>에서는 자유의지/강제의 균열이 표면적으로는 봉합되지 못한 채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좌파이데올로기의 진리성이라는 틀로 이면적으로 봉합되어 있다. 이는 ‘역사의 필연성’이라는 근대적 역사관에 내재해 있는 폭압적 자질이 <고목>의 중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식민기의 친일극 <거리는>과 해방기의 좌파극 <고목>에 공

31) “Shard but contested, they(South and North Korea: 인용자 주) mark a common heritage bequeathed by writers at the turn of the century who were coming to terms for the first time with the capitalist modernity that supported an international system based on the nation-state—a system that continues to fashion our world today.”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 257)

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파시즘적 국민국가 담론이었다. 일제의 파시스트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정책은 전형적인 집단주의적 정신에 의해, 말하자면 국가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인민의 삶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신에 의해 일차적으로 견인되었다.³²⁾

민중을 계몽, 교화하는 ‘예술’ 연극이라는 개념은 쉽게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회한다.³³⁾ 함세덕이 신극을 통해 연극계에 입문하여 국민극과 좌파극을 거쳐나간 그 길에는 근대 예술 고유의 ‘계몽’ 기획이 철저히 놓여 있었고 그 노선을 타고 달린 것은 ‘국민국가’라는 근대 최고의 표상이자 상상된 공동체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동권, 《현대희곡작품집》 제5권, 서광학술자료사, 1994.
 노제운, 《함세덕 문학전집 I, II》, 지식산업사, 1996.
 서연호, 『식민지시대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서연호, 『한국연극전사』, 연극과인간, 2006.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도서출판 역락, 2006.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32) 기무라 미쓰히코, 최성진 역, 「파시즘에서 공산주의로-북한 집단주의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발전」,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훈 편), 책세상, 2006, 760면.

33) 효도 히로미, 문경연 · 김주현 역, 『연기演技된 근대』, 연극과인간, 2007, 304면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효도 히로미, 문경연 · 김주현 역, 『연기演技된 근대』, 연극과인간, 2007.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2. 논문

김성수, 「일제강점기 사회주의문학에 나타난 민족 및 국가주의」, 『한국 근대문학
 학과 민족-국가 담론』(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명출판, 2005.
 김재석, 「함세덕 친일극의 성격과 작가적 의미」, 『어문논총』 제37호, 경북어문학
 회 2002.
 김재석, 「1940년대 후반기 함세덕 희곡 연구」, 『어문학』 제92집, 2006. 6.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
 력』(김진균, 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1997.
 박수연, 「내재성 부재의 주체와 문학적 종착지」, 『친일 문학의 내적 논리』(김재
 용, 김화선, 박수연 외), 도서출판 역락, 2003.
 박영정, 「함세덕의 『어밀레종』에 관한 연구」, 『함세덕』(이상우 편), 새미, 2001.
 변은진, 「조선인 군사동원을 통해 본 일제식민정책의 성격」, 『아세아 연구』 제
 46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2003.
 신형기, 「총력전과 멜로드라마, 그리고 월드컵」, 『당대비평』 통권 제20호, 생각
 의 나무, 2002. 9.
 양승국, 「1940년대 국민연극론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6집, 한국극예술학회,
 1996. 7.
 이상우, 「북한 희곡에 나타난 이상적 여성-국민 창출의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21집, 2005. 4.
 이해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식민지-1920-30년대 소설의 섹슈얼리티, 젠더,
 계급」,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2.
 기무라 미쓰히코, 최성진 역, 「파시즘에서 공산주의로-북한 집산주의 경제정책
 의 연속성과 발전」, 『해방전후사의 재인식』(박지향, 김철, 김일영, 이영
 훈 편), 책세상, 2006.
 미키 키요시, 유용태 역, 「신일본의 사상 원리」,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최원식, 백영서 편), 문학과지성사, 1997.

Abstract

Nation-state Discourse Represented in the Plays of Ham Sae-deok
 -Centered on the Comparison of “Street is Cool Autumn” to “Old Tree”-

Baik, Seung-suk

This thesis pursu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et is Cool Autumn” and “Old Tree” written by Ham Sae-deok. Both works represent the cracks of free will/compulsion. In “Street is Cool Autumn”, the cracks are sutured by dissolution of individualism and paternalistic nationalism. And in “Old tree”, the cracks are sutured by the idea of ‘truth of the left ideology’. A pro-Japanese drama from the colonial periods, “Street is Cool Autumn” and a drama produced by the Left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ld tree” look very different at a glance, though the former had been adapted for the latter. But, both works do not reveal the difference of colonialism and post colonialism, but instead, rather shows us identity and continuity as a mirror image of each other. The Japanese colonial discourse and the left national discours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ere established on the same ground. That was the very ‘making nation-state’, world-wide modernization projects.

Key words : nation-state discourse, nationalization, resistance, enlightenment,
 cracks, suture, colonial discourse, mirror image

접 수 일 : 2008년 2월 29일
 심사기간 : 2008년 3월 1~22일
 게재결정 : 2008년 4월 2일